

Field Voice >>>

전력산업 '경쟁촉진'으로 가다

한전 발전자회사의 통합 여부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용역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전으로의 통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DI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발전자회사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자회사를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수원의 한전으로 흡수·통합 역시 통합하는 것과 자회사로 남는 것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한전에서 판매부문을 분리하는 안이 새롭게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KDI 용역 결과는 한전으로의 재통합보다는 전력산업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용역 결과는 한전으로의 재통합과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고 판매부문을 분리하는 강력한 구조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독점하고 있는 나라 우리 밖에 없다"

대표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 찬성론자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기요금에 시장의 수요공급을 도외시키고 정치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심각한 왜곡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수입원가의 상승이나 수송가의 에너지 낭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정치인들의 배려부족으로 치부해 버리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손양훈 교수는 "정치적 개입과 공기업 독점체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공기업 독점체제 하의 전기요금은 다양한 경제정책과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에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에너지 낭비를 지속하는 우매한 국가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 교수는 "그 어느 나라도 단일 공기업이 국가 전체의 전력이나 가스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경쟁을 거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엔 쓰레기통에서 나온 전략"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이번 KDI 보고서의 결과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모델 중에 '쓰레기통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 민영화라는 쓰레기통에 각종의 논의 내용을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섞어 놓고서 거기에서 집어든 한 무더기의 쓰레기를 국가 정책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느낌이다. 쓰레기통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정책의 공공적인 전략의 기초가 쓰레기통 속에서 사라진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이번 KDI 보고서는 지난 10여년간 내부 운영구조를 민주적으로 고치려 했던 공기업 수장들의 수고를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적인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IMF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고 공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수 교수는 "지경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얘기하지 말고 에너지산업과 관련한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